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公無渡河(공무도하) : **그대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 죽음의 만류

이 노래의 첫 구절인 '公無渡河'는 곧 사랑하는 남편이 미처서 황급히 물 속으로 뛰어들려는 순간을 노래하였다. 이 경우에 '물', 즉 저 임이 건너지 말아야 할 물은 님과 나를 영원히 이별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부르는 '公'은 시적 화자의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는 절박한 호소를 의미한다.

■ 公竟渡河(공경도하) : **그대는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 '임과의 이별'

'公竟渡河'에서 '竟'과 결합되는 '河'는 사랑의 종말을 뜻함과 동시에 임의 부재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물은 사랑을 뜻한다기보다는 시적 화자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만드는 물로 죽음의 이미지가 강하다.

■ 墮河而死(타하이사) : **물에 빠져 죽으니** - '임의 죽음'

'墮河而死'에서 '河'는 임의 부재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시적 화자는 여기서 사랑하는 임의 죽음을 통해 깊은 단절감을 느끼게 되리라.

■ 當奈公何(당내공하) : **장차 임을 어찌할 것인가.** - 임의 죽음을 슬퍼함

서정적 자아의 심정이 집약된 구절로 서정적 자아의 탄식과 원망의 애절한 울부짖음이 폭발하고 있다. 이 극한적인 비극적 심리의 폭발이 곧 배경 설화에서와 같이 여인의 자살을 몰고 온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은 처용가의 '아아! 엇디하릿고, 청산별곡의 '잡사와니 내 엇디하리잇고', 또한 시조의 종장에서 흔히 보는 '~어떠리'에 관류(①하천 따위가 어떤 지역을 꿰뚫어 흐름. ②사상 따위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의 바탕에 깔려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하는 일련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이다.

이 노래의 미적 특질은 비애미이고, 서정시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슬픔의 정한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며, 이 노래가 '황조가'와 같은 점은 형식에 있어서 동일하며,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물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노래로 부른다면 애절하고 처절한 발라드곡(포플러송 가운데서センチ멘틀한 러브송 종류)에 해당한다. **전통적 한과 체념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

■ 이 작품에 중심 소재는 물로 시적 화자의 심리 변화 과정은 애원 - 초조 - 비애 - 체념이다. 왜냐하면 시상의 전개 과정이 '임에 대한 만류, 임과의 이별, 임의 죽음, 이별의 정한을 담은 님두리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본문 해설 2

▶ 기(1구) : 임이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한 만류 → 애원

시적대상 - 백수광부

公無渡河
공무도하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에 대한 화자의 충만한 사랑

▶ 승(2구) : 물을 건너는 임 → 초조, 불안

기어이

公竟渡河
공경도하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 임과의 이별 → 임의 부재
↳ 삶과 죽음(차안과 피안)의 경계
→ 단절의 공간적 형상화(이별)

↑ 임과의 이별(애원, 초조)

↓ 임을 잃은 슬픔, 체념, 한탄

▶ 전(3구) : 물에 빠져 죽은 임 → 비애

墮河而死
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임의 죽음

▶ 결(4구) :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체념 → 슬픔과 체념, 한탄

當奈公何
당내공하

가신 입을 어찌할꼬.
↳ 화자의 심정 집약 → 슬픔과 탄식 ⇒ 비극적 심리의 폭발
↳ 설의법
↳ 체념적 태도
↳ (예) '차용가' - '아사늘 엇디허릿고.'
'청산별곡' - '내 엇디허릿고'
'시조' - '무슴하리오', '어이 하리오'

▣ 작품해설 1

■ 요점 정리

- 작자 : 백수광부의 아내(원작자는 백수 광부의 처이며, 광리자고의 부인 여옥이 이를 노래로 정착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가사명일 경우 '공무도하가'로, 곡조명일 경우 '공후인'으로 구분한다.)
- 연대 : 고조선(古朝鮮)
- 갈래 : 개인적 서정시(4언 사구체의 한역 시가)
- 어조 : 여성적 화자의 탄식과 원망과 애절한 울부짖음과 체념적인 어조
- 성격 : 직서법으로 직정적(直情的)이고, 절박한 호소의 절규적 표현, 비극적
- 별칭 : 곡명은 '공후인'
- 소재 : '강' 또는 '물'
- 구성 : 4언 4구체
- 주제 : 임을 여인 슬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함,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을 애도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임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

■ 의의 :

- ① '황조가와 함께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서정 가요.
 -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과도기 작품.
- 출전 : <해동역사권 22 악가 악무조>

■ 내용 연구

고대는 우리 문학이 태동한 시기로 고대 가요는 대부분 제천 의식과 관련이 많이 있어. 우리 조상들도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원시종합예술을 즐겼다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고대시가의 대부분은 집단 가요이거나 노동요인데 인간이 점점 개인화되면서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류의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당시의 작품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부 작품이 대부분 설화 속에 구전되어 내려 오다가 문자로 정착된 것이 많단다. 그리고 그 설화를 통해서 그 노래의 배경을 짐작하고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논리로 해석을 하고 있단다. 지금 읽은 공무도하가도 집단 가요에서 개인 서정시가로 넘어가는 시기의 가요로 임을 여인 슬픔을 노래한 작품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물'이 주는 상징성들을 고려하면서 읽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인간에게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도 변하지 않는 본능적인 것의 하나로 보면 되지^^ 오늘날의 관점에서 시적 화자가 남편을 뒤따르는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이유가 있단다.

혹시 순장(殉葬)이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있지. 순장은 '지배층에 속한 인물을 장사지낼 때 주변 사람들을 함께 묻는 것'으로 원시 시대에서는 순사(殉死)·순송(殉送)이라고도 하는데 자진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으나 강제로 묻히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산 채로 묻는 일도 있었으나 죽여서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던단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미덕으로 간주되었단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을 따라 죽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알려진 세상이었던단다. 물론 꼭 순장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단다. 정말로 사랑하는 임의 부재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그것을 상실감으로 표현할 수도 있단다. 그래서 죽음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작품이라도 그 작품을 읽을 때 관련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읽으면 작품의 감상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자! 그 당시 세상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로 발라드댄스설이라는 원시종합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해.

■ 이해와 감상

공무도하가는 임을 잃은 슬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우리는 우리 문학의 저변에 흐르는 전통적인 한국의 여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남편의 죽음을 보고 뒤따라 죽는 아내의 모습에서 다소나마 기다림과 한(恨), 체념에 묻혀 살아 온 인종(忍從)의 한국 여인, 정렬(貞烈)의 여심(女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 민족의 정서를 한(恨)이라고들 하는데, 이 한은 이별과 죽음에서 온다. 우리 나라의 서정시에서 이별을 다룬 것이 많은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랜 옛날부터 한의 정서가 싹터왔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작

품은 우리 나라 서정시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노래는 한국적 정서인 한(恨)의 원류(原流)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노래의 중요한 제재인 강물이 훗날 고려 가요 속요의 '서경별곡(西京別曲)'이나 정지상(鄭知常)의 '송인(送人)'등 많은 이별가에 등장하고 있음은 이런 연유에서 일 것이다. 이 노래에 대해서는 신화적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정병욱교수는 설화 속의 백수광부는 희랍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와 로마신화에 나오는 바카스에, 그의 처는 주신을 따라다니는 악신 님프에 비교해 볼 만하다고 하면서 물을 매개로 하여 사랑과 죽음이 결합된 이 노래는 사랑과 죽음을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강렬한 애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덕순 교수는 '當奈公何(당내공하)'에서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한다는 여인의 의지를 찾을 수 있어 이 노래는 결국 '정렬의 여심'을 노래한 것이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백수광부의 행동은 황홀경에 든 신, 또는 무당의 행동이며, 이 행동은 강물에 뛰어들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권능을 확인하는 의식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 심화 자료

■ '공무도하가'의 배경 설화

한치윤의 해동역사에 의하면 최표의 <<고금주>>에 기록된 이 노래의 배경설화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공후인은 조선(朝鮮)의 진졸(津卒) 광리자고(涇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것이다. 자고(子高)가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저어 가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외치며 막았으나, 다다르기도 전에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그의 아내는 공후(謙隸)를 타며 '공무도하(公無渡河)'의 노래를 지으니, 그 소리는 심히 구슬뿔다. 그의 아내는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물에 던져 죽었다.

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麗玉)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용(麗容)에게 전하니 일컬어 공후인이라 한다.

이 노래는 채록자·채록양식·창작지역 등이 중국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작품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창작지역인 중국의 직례성 조선현(直酪省 朝鮮縣)이 고조선 이래로 한인(韓人)들이 잔류하면서 독자적인 문화양식을 유지하던 곳이어서, <공무도하가>의 원작자가 반드시 중국 사람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즉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작자는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에서 <공무도하가>를 우리의 고대가요로 보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중국 쪽에 이런 노래가 전해지고 기록된 것은 우리 노래가 그만큼 널리 전파되어 있었던 증거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 작품해설 2

[작품 연구]

- 갈래 : 고대가요, 한역시가
- 성격 : 개인적, 서정적, 체념적, 애상적, 여성적
- 시적화자 : 백수광부의 아내
- 시적상황 : 물을 건너는 남편을 아내가 만류하고 있음
- 정서/태도 : 체념적, 애상적
- 어조 :
- 주제 : 임을 여인 슬픔(이별의 한)

• 구성

- 기(1구) : 임이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한 만류
- 승(2구) : 물을 건너는 임
- 전(3구) : 물에 빠져 죽은 임
- 결(4구) :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체념

• 특징

- ①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 ②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현전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서정시
- ③ 배경설화가 있음

↳ 고조선 때 사공 광리자고가 새벽에 나루터에 나갔는데 흰머리를 한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 아내가 따라가 건너지 말라고 외치며 말렸으나, 그 사람은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고 그의 아내가 공후를 튕기며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따라 죽었다.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 이 광경을 아내에게 말하고 노래를 들려주자, 그녀(여옥)가 공후를 타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니, 듣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 ④ 고대인의 세계관과 사랑에 대한 생각이 드러남
- ⑤ 중심 소재인 '물'의 의미가 '사랑-이별-죽음'으로 변화하며, 민족의 보편적 정서인 한을 노래함

• 이해와 감상

“해동역사(海東繹史)”에 한역(漢譯)되어 전하는 이 작품은 고조선 때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악곡명에 따라 '공후인(箜篌引)'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1구부터 4구까지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자면, 1구는 남편이 강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2구는 이미 강물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임의 죽음을 예고하는 순간이며, 3구에서는 임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다. 4구에서는 영원한 이별로 인한 화자의 탄식과 슬픔, 체념 등이 나타난다.

우리 문학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시편 중 하나인 '공무도하가'를 통해 이별과 죽음, 슬픔과 그리움 등의 소재와 정서가 우리 서정시에서 근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후대 많은 작품에 계승되며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 작품해설 3

※ 백수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

- 갈래 : 고대 가요, 한역 시가
- 성격 : 개인적, 서정적, 체념적, 애상적
- 제재 : 물을 건너는 임
- 주제 : *임을 여인 슬픔(이별의 한)
- 의의
 -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
 -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 나라 최고(最古)의 서정시
- 연대 : 고조선
- 출전 : “해동역사(海東繹史)”
- 이 시의 짜임

기(1구)	임이 물을 건너는 것에 대한 만류	임과의 이별
승(2구)	물을 건너는 임	
전(3구)	물에 빠져 죽은 임	임을 잃은 슬픔
결(4구)	임을 잃은 화자의 슬픔과 체념	

★ 이별의 슬픔(한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 계보

고대 가요 ‘공무도하가’ → 백제 가요 ‘정읍사’ → 고려 가요 ‘가시리’, ‘서경별곡’ → 한시 정지상의 ‘송인’ → 현대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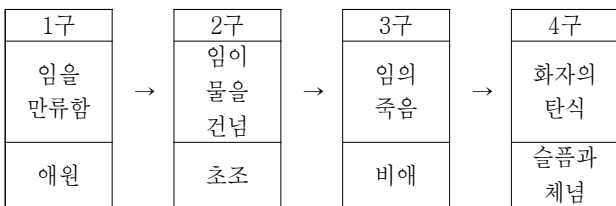
[이해와 감상]

“해동역사(海東繹史)”에 한역(漢譯)되어 전하는 이 작품은 고조선 때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악곡명에 따라 ‘공후인(箜篌引)’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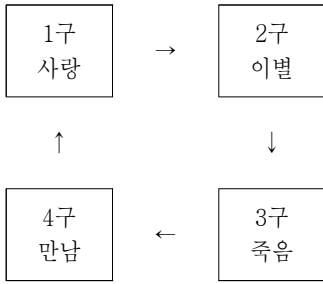
*1구부터 4구까지의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살펴보면, 1구는 남편이 강에 들어가려는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 2구는 이미 강물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으로, 임의 죽음을 예고하는 순간이며, 3구에서는 임의 죽음이 확인되고 있다. 4구에서는 영원한 이별로 인한 화자의 탄식과 슬픔, 체념 등이 나타난다.

우리 문학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시편 중 하나인 ‘공무도하가’를 통해 이별과 죽음, 슬픔과 그리움 등의 소재와 정서가 우리 서정시에서 근원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서는 후대 많은 작품에 계승되며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 ‘공무도하가’의 시상 전개



[물의 이미지]



1구에서 화자는 임에게 행동의 중지를 요구한다. 여기서 '물'은 단순히 자연으로서의 '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시적 화자의 사랑이 담겨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2구에서 '물'은 물을 건너 버린 임과 화자의 기약없는 이별을 의미한다. 3구의 '물'은 임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배경 설화에 따르면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고 한다. 남편과 남편을 뒤따라 익사한 아내의 영원한 사랑이 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물'이 죽음의 의미로 끝나지 않고 만남과 재생의 이미지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백수광부와 아내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백수광부를 신화적 존재로, 아내를 현실적 존재로 보고, 백수광부의 죽음은 신화적 질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백수광부와 아내 모두 무당으로 보고 무당이 의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들고 미치광이짓을 하며 강물에 뛰어드는 비상식적인 행동은 황홀경에 든 무당의 모습이라야 이해가 된다. 고조선이 국가적인 체제를 확립하면서 무당의 지위가 상실되자 이에 좌절하여 죽음을 택한 것이다. 또한 백수광부를 주신(酒神)으로, 아내를 주신을 따르는 악신(樂神)으로 보고,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듯한 깊은 물의 이미지를 통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극한의 사랑을 노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읽어 읽기]

※ 유리왕, <황조가> - 유리왕의 '황조가' 역시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한 고대 가요이다. '공무도하가'와 '황조가'는 둘 다 개인적인 서정시로서 임을 잃은 슬픈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전까지의 시가가 집단적인 목적이나 의도와 관계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두 시는 개인적인 슬픔의 정서를 드러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1

去隱春皆理米(거은춘개리미)

지나간 봄이 그리워서

→ 죽지랑과 함께 했던 세월

毛冬居叱沙哭屋戶以憂音(모동거질사기옥시이우음)

모든 것이 울며 시름에 잠기는 구나

⇒ 죽지랑의 부재로 인한 슬픔

<阿冬音乃叱好支賜烏隱(아동음내질호지사오은)

아름다움 나타내신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아사년수취음타지행제)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는구나...>

→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 죽지랑의 생전의 모습 회상

<目煙迴於尸七史伊衣(목연회어시칠사이의)

눈 돌이킬 사이에나마

逢烏支惡知作乎下是(봉오지악지작호하시)

만나 볼 기회를 만드려.>

→ 죽지랑에 대한 그리움

→ 사상적 배경이 불교의 윤회사상(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리라고 기대)

⇒ 재회에 대한 소망

郎也慕理心未行乎尸道尸(낭야모리심미행호시도시)

날이여,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 죽지랑

蓬次叱巷中宿戶夜有叱下是(봉차질항중숙시야음유질하시)

다북쑥 우거진 마을에서 함께 잘 수 있는 밤이 있으리.

→ (다북쑥): 저 세상

→ 죽어서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기원

⇒ 재회의 확신

▣ 작품해설

[전문 풀이(1)]

(그대가 계셨던) 지나간 봄이 그리워서
모든 것이 울며 시름에 잠기는구나. <사별에 대한 슬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그대의)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 하는구나. <살아 생전의 임의 모습 회상>

눈 돌이킬(깜짝할) 사이에나마
만나 뵈도록 (기회를) 지으리이다. <재회에 대한 전망>

죽지랑이여, 그리운 마음이 가는 길
다북숙이 우거진 마을에서 함께 잘 밤이 있으리다. <재회의 확신>

[전문 풀이(2)]

간(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울어 시름하는구나. <젊음에의 회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얼굴이 주름살을 지니려는구나. <늙음의 안타까움>

눈 돌이킬(눈 깜빡할) 사이에
만나 뵈옵기를 지으리. <그리움의 충동>

낭이여, 그리운 마음의 가는 길,
다북숙 우거진 마을에 잘 밤 있으리오.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

▣ 핵심 정리

- 연대 : 신라 효소왕 때
- 갈래 : 8구체 향가
- 성격 : 찬양적, 흠모적, 추모적
- 제재 : 화랑 죽지랑을 흠모하는 마음
- 주제 : 죽지랑에 대한 사모(추모)
- 의의
 - 주술성이나 종교적 목적이 없는 순수 서정시
 - 8구체 향가로서 화랑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
- 구성
 - 1,2행 : 돌이킬 수 없는 봄에의 회한
 - 3,4행 :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 5,6행 : 죽지랑을 보고 싶은 애정의 충동
 - 7,8행 : 만날 수 없음에 대한 탄식

★ 해석상의 차이 : '죽지랑'의 생사 여부에 따라

① 죽지랑이 타계(他界)한 뒤에 쓴 추모의 시로 해석 : 주술적,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 서정시로 죽지랑을 추모하고 그리워함

⇒ 이 시에서, '봄'은 죽지랑과 지내던 좋은 날들을 상징하는데, 1~2행에는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한(恨)과 슬픔이 서려 있다. 제3~4구는 이런 한과 슬픔이 세월 따라 노쇠(老衰)해 가던 죽지랑의 모습과도 관련된 것임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의 애절한 마음을 제5~6구에 이르러 낭(郎)에 대한 충동적 그리움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7~8구에 이르러 화자의 정서는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처절한 탄식으로 응결된다. '다복쑥 우거진 마을'은 낭(郎)을 만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유래된 정신의 황폐화를 비유한 것이다.

② 죽지랑이 살아 있을 때 그 인품을 사모하는 뜻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보는 경우 : 화랑의 세력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 배경 설화에 서술되어 있는 죽지랑과 익선의 갈등, 대립은 삼국 통일 이후 화랑도(花郎徒)의 실세(失勢)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적 갈등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노래는 익선에게 징발되어 부역(賦役)하고 있던 화자가 존경과 찬미의 대상이었던 노화랑(老花郎)의 쇠잔해 가는 모습을 보며 그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여 사회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작품이 된다. 제1~2구에서 '간 봄'은 죽지랑의 위세 담당했던 시절을 뜻한다. 제3~4구는 낭의 수려한 용모가 해가 갈수록 쇠(衰)해 가는 데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며, 제5~6구는 죽지랑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예비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두 구는 낭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로 잠을 못 이룬다는 뜻인 바, '다복 굴항'은 낭과 헤어져 지내는 황량한 곳, 즉 부역을 하는 곳을 말한다.

★ 향가 '제망매가'와 비교

⇒ 추모가라는 성격상에서 공통적이나 '제망매가'가 육친에 대한 추모라는 점에서는 다르다.

■ 이해와 감상

이 노래는 죽지랑에 대한 애정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더욱 정신적 가열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순수 서정시로 볼 수 있다.

이미 가 버린, 돌이킬 수 없는 봄[春情]에의 회한이(1,2구) 송양의 정으로 이입된 죽지랑의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폭발되고(3,4구), 이로 인해 더욱 만나고 싶은 애정의 충동(5,6구)은 드디어 만날 수 없음에 대한 처절한 탄식으로 마무리되는(7,8행) 득오만의 정서적 서정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지막 7, 8행은 10구체 향가의 낙구인 9, 10구와 같은 감탄사를 가진 유사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절묘한 은유적 표현으로 전개되어 있다. '그리워할 마음의 가는 길'이라는 감정의 구상화와 '다복쑥 마을'이 지나는 황촌(荒村)은 곧 작자 득오가 낭을 만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정신적 초토(焦土)나 폐허의 은유적 표현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작자의 정서적 처절성이 가열하면 해질수록 죽지랑이라는 화랑의 인품과 덕의 높음을 실감 있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와 감상

화랑 죽지랑의 무리인 득오곡이 자기가 모시던 죽지랑이 죽자 그를 그리워하며 읊은 노래이다.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인 죽지랑을 찬양하면서 그를 그리는 마음이 행여 무심치 않다면, 저 세양 어느 곳에서라도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총담상의 '찬 기파랑가와 함께 화랑을 기리고 그리워하는 노래로서, 죽지랑에 대한 사모의 정과 인생 무상의 정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술성이나 종교적인 색채가 다른 작품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순수 서정시에도 진일보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때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여러 대에 걸쳐 대신으로서 존경과 찬미를 한몸에 받았던 노화랑의 쇠잔한 모습을 안쓰러워하는 득오곡의 심정에서, 삼국을 통일한 이후 화랑도가 실세(失勢)하여 가는

과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여 주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노래이다.

▣ 배경 설화

신라 32대 효소왕 때 죽지랑의 무리 가운데 득오라고 하는 급간(級干, 신라 관등 제9위)이 있었다. 화랑도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 놓고 매일 출근하더니, 한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아, 죽지랑이 그의 어머니를 불러 아들이 어디에 갔느냐고 묻자,

"당전(幢典, 오늘날의 부대장) 모양부(牟梁部)의 익선(익선 아간(阿干, 신라 관등 제6위)이 내 아들을 부산성의 창직(倉直)으로 임명하여 급히 가느라고 낭게 알리지 못하였습니다."고 했다.

"그대의 아들이 만일 사사로이 그 곳에 갔다면, 찾아볼 필요가 없겠지만, 공사로 갔다니 마땅히 가서 위로하고 대접해야겠소."하고는, 익선의 밭으로 가서 떡과 술을 득오에게 먹인 다음 익선에게 휴가를 청했으나, 허락치 않았다.그때 마침 간진이라는 사람이 추화군(지금의 밀양) 능절의 조(租, 조세) 30석을 가다가 죽지랑의 선비를 존대하는 풍도를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의 막히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비루하게 생각, 벼 30석을 익선에게 주면서 익선에게 청했으나 역시 허락치 않았다. 이에 진절사지가 쓰는 말안장을 주었더니 드디어 허락했다. 조정의 화주(花主)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익선을 잡아다가 추한 마음을 씻겨 주고자 했으나 도망쳤으므로, 아들을 대신 잡아 갔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서경(평양)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重修)한 곳인 중수(重修)한 곳인 소성경(小城京 : 수도인 송도에 대하여 서경을 이르는 말)을 사랑합니다마는
(여인이 사랑하는 곳)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배(여인의 모든 것, 생업)를 버리고서라도(존대의 뜻이 아님)[임과 이별할 것이면 차라리 '질삼베'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좇겠다는 적극적이고 활달한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저를)사랑만 해 주신다면 (저를)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모의 정

구슬이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설의적 표현]

(임과 헤어져) 천년을 천 년을 홀로(외따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믿는 마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 설의적 표현)? - 임에 대한 끊지 못하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대동강 대동강[대동강은 배가 없으면 임이 떠날 수없는 공간이므로, 화자와 임의 이별을 매개해주는 공간이다 / 임과의 공간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배경]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배를 내어 놓았으나 사공아.

네 아내가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음탕한 짓을 한 줄도, 너의 시름이 큰 줄을 몰라서 등으로 해석) 모르고

다니는 배에 다니는 배에(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들지 못하는 답답함을 '저 배가 없었으면 떠나지 못할 텐데'라며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된다. 또 사공의 부인에 대해 험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공으로 하여금 배의 운항을 중단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이지만 그 속뜻은 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엿보게 한다. 이 구절은 엉뚱하게 욕을 얻어 먹는 사공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먼 여인의 남탓이 볼 만하고, 당시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시리'와 더불어 성별 차별의 사회적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 의지가 다소 강하다는 것이다.)

(나의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꽃(여기서는 다른 여인, 즉 임이 새로이 좋아하는 여인을 비유함)을 배를 타면 꺾을 것
입니다(그곳 여인과 사랑을 맺을 것입니다. / 화자의 질투와 원망의 감정이 드러남). -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 현대어 해석

서경(평양)이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중수(重修)한 곳인(새로 닦은 곳) 중수한 곳인 소성경(小城京)을 사랑합니다마는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임을 이별하기보다는) 임을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배를 버리고서라도
사랑만 해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구슬이 바위 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임과 헤어져)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사랑하는 임을 믿는 마음이야 끊기고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동강이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놀아난 줄도 모르고(너 아내가 음란한 지 몰라서, 네가 시름이 큰 줄을 몰라서)

(가는 배)다니는 배에 몸을 실었느냐 사공아.

(나의 님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배를 타고 건너편에 들어가면 꺾을 것입니다.

▣ 작품 해설 1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의 배경은 대동강변이다. 푸른 물결을 앞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직 임의 사랑만을 애원하며 하소연한다. 한(恨)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같은 고려 속요 작품인 「가시리」 역시 이별의 슬픔과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였으며, 이러한 정서를 근대시에서 계승한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평민적 감정의 발현으로서 고려 속요의 가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면은 3연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골계미(滑稽美)를 함축하고 있는 이 노래는 '가시리'와 함께 별리(別離)의 노래로 쌍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西京과 大洞江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드러냄으로써 강한 향토애를 표현하고 있다. 대동강을 경계로 하여 미지의 세계, 나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대동강'은 '이별의 강'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서경'은 '이별이 없는 사랑의 세계'라는 의식을 담고 있다.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는, 적극적이고 꾸밈이 없고 활달하였던 당대의 여인들의 모습을 소박하게 담고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고려속요, 고려가요, 장가

■ 형식 : 전 3연 14절, 3:3:3조의 정형률

■ 운율의 형성

- 동일어의 반복
- 동일 음운의 반복
- 음보의 규칙성
- 일정한 음절수의 반복

■ 성격 : 진솔(眞率), 직선적, 적극적

■ 주제 :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 '아즐가'라는 의미 없는 말을 넣고, 매구 끝에는 후렴구가 있음
- 조선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비판받기도 했음
- 반복법, 설의법, 비유법을 통해 감정을 진솔하고, 직설적, 적극적으로 표현함
- 각 구절 앞의 동일어 반복을 통한 운율감
- "동동"이 시간구조로 짜여져 있다면 이 작품은 공간구조로 짜여져 있음

■ 의의 : '청산별곡'과 함께 창작성과 문학성이 뛰어나다.

■ 구성

⇒ 여자가 떠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는 희곡적 구조로 전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연은 4구로 되어 있으며, 총 14연, 이 노래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조 역시 상당히 이질적이다. 1연과 3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2연에서는 이성적인 어조를 지닌 남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2연은 고려 속요인 '정석가'와 동일한데, 이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단일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여러 노래들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곡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 1연(1-4절)- 이별을 아쉬워하는 연모의 정 (여인의 목소리)
- 2연(5-8절)-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남성의 목소리)
- 3연(9-14절)-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여인의 목소리)

★ 핵심 시어의 의미

■ 대동강(임과의 공간적 단절감을 드러내는 배경)

⇒ 대동강은 배가 없으면 임이 떠날 수 없는 공간이므로, 화자와 임의 이별을 매개해주는 공간이다

■ 사공(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대신 표출하는 대상)

⇒ 시적 화자는 떠나는 임을 붙들지 못하는 답답함을 '저 배가 없었으면 떠나지 못할 텐데'라며 제 3자인 사공에 대한 원망으로 표출된다. 또 사공의 부인에 대해 험담까지 하고 있는 것은 사공으로 하여금 배의 운항을 중단하게 하려는 적극적 의도이지만 그 속뜻은 임에 대한 강렬한 애정을 엿보게 한다. 이 구절은 엉뚱하게 욕을 얻어먹는 사공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에 눈먼 여인의 남탓이 볼 만하고, 당시 여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시리'와 더불어 성별 차별의 사회적 속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여성의 적극적 의지가 다소 강하다는 것이다.

※ 시적화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사공'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시어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갓치 알미오라.

뫼운 님 오며는 꼬리를 뽕뽕치며 뉘락 나리 뉘락 반겨서 내닷고, 고운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 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쑤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라.

■ 꽃⇒ 여기서는 다른 여인, 즉 임이 새로이 좋아하는 여인을 비유함

★ '서경별곡'에 나타난 여인의 성격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한을 읊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그러면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가 여성적이라는 데에도 공통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가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고(忍苦)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는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고려 시대 서경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가시리'와는 달리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3연에 나타나는 '사공'과 '그의 아내'는 사실은 남은 여인과 떠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곧 다른 연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에서 골계적(滑稽的)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

★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의 태도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다같이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며, 그 화자가 여성이리라고 판단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시리'가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가라면,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 이별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시리'의 화자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여인이라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이며 직선적인 성격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서경별곡'의 마지막 연의 내용은 이러한 감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화자가 사공에게 사공의 아내가 정분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공을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님이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전통적 정서와 서정적 자아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다. 이별에 따른 정한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정한'은 멀리 고구려의 "황조가"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황조가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꼬꼬리'라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부각되고 있는데, '서경별곡'에서는 어떤 매개체 없이 직선적이다. 그만큼 감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은 '가시리'를 비롯한 여타의 고려 속요, 정지상의 '송인'과 같은 한시, 황진이 시조, 민요의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많은 문학 작품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작품 해설 2

요점 정리

- **작자** : 미상(未詳)
- **연대** : 고려 때
- **갈래** : 고려 가요
- **성격** : 진솔(眞率), 직선적, 적극적
- **형식** : 3음보로 매연 끝에 후렴, 분연체, 3연 14절 (3·3·3조가 주류)
- **제재** : 임과의 이별
- **주제** : 이별의 정한, 이별의 슬픔
- **표현** : 반복법, 설의법, 비유법을 통해 감정을 진솔하고, 직설적, 적극적으로 표현함
- **구성** : 여자가 떠나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는 희곡적 구조로 전 3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 연은 4구로 되어 있으며, 총 14연. 이 노래의 각 연은 시상 전개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조 역시 상당히 이질적이다. 1연과 3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여인의 목소리가, 2연에서는 이성적인 어조를 지닌 남성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2연은 고려 속요인 '정석가'와 동일한데, 이는 당대에 이와 같은 구절이 유행했다는 점을 말해 주기도 하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 첨삭 중복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노래는 단일한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당시 여러 노래들이 합성하여 만들어진 곡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1연 - 1-4절	이별을 아쉬워 하는 연모의 정 (여인의 목소리)
2연 - 5-8절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의 맹세 (남성의 목소리)
3연 - 9-14절	떠나는 임에 대한 애원 (여인의 목소리)

- **특징** : '아즐가'라는 의미 없는 말을 넣고, 매구 끝에는 후렴구가 있음. 조선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비판받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배 타들면 것고리이다'는 여인의 정조를 범한다는 의미로 유교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의의** : "청산별곡"과 함께 창작성과 문학성이 뛰어나다.
-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

■ 이해와 감상

골계(익살을 부리는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는 일)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작품의 배경은 대동강변이다. 푸른 물결을 앞에 두고 임과 이별하는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직 임의 사랑만을 애원하며 하소연한다. 한의 정서로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은 우리 시가 문학의 전통으로서 평민적 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같은 고려 속요 작품인 '가시리' 역시 이별의 슬픔과 간절한 사랑을 노래하였으며, 이러한 정서를 근대시에서 계승한 것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평민적 감정의 발현으로서 고려 속요의 가치를 보여 주는 특징적인 면은 3연에 있다.

즉, 한편으로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보이면서도, '강'만 건너면 혹시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앓을까'하는 불안과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것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현실적 생활 감정의 표현인 것이다.

이 노래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음미할 수 있다. 첫 부분은 이별의 고통과 임의 뒤를 따르겠다는 애절한 소망과 연모(戀慕)의 정을 노래한 8행까지이고, 둘째 부분은 사랑의 정(情)은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노래한 16행까지, 마지막 부분은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마지막 행까지이다. '서경별곡'의 둘째 연은 '정석가'의 여섯째 연과 일치한다. 이것은 구전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이 그대로 채록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 심화 자료

- '서경별곡'에 나타난 여인의 성격

'서경별곡'은 '가시리'와 함께 이별의 정한을 읊 노래한 고려 가요이다. 그러면서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가 여성적이

라는 데에도 공통적인 면을 지닌다. 그러나 '가시리'에 나타나는 서정적 자아가 전통적으로 나타나는,인고(忍苦)와 순종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인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 노래의 서정적 자아는 적극적이고 활달했던 고려 시대 서경의 여인상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고 있는 '가시리'와는 달리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 3연에 나타나는 '사공'과 '그의 아내'는 사실은 남은 여인과 떠나는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곧 다른 연인에게 정을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서정적 자아의 목소리에서 골계적(滑稽的)인 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작품	공통점	차이점
서경별곡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고려 가요이며 화자의 목소리가 여성적임	적극적이고 활달한 고려 시대의 여성상
가시리		인고와 순정을 미덕으로 간직하는 여성상

▪ '가시리'와 '서경별곡'의 화자의 태도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다같이 이별을 노래한 작품이며, 그 화자가 여성이라고 판단되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가시리'가 자기 희생과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재회를 기약하는 이별가라면, '서경별곡'은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함께 있는 행복과 애정을 강조한 이별가라고 하겠다. 따라서 '가시리'의 화자가 인고와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소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여인이라면, '서경별곡'의 화자는 사랑과 믿음을 중요시하는 자기 중심적이며 직선적인 성격의 여인이라 할 수 있다. '서경별곡'의 마지막 연의 내용은 이러한 감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화자가 사공에게 사공의 아내가 정분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 사공을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님이 대동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전통적 정서와 서정적 자아

이 시의 서정적 자아는 여성이다. 이별에 따른 정한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이별의 정한'은 멀리 고구려의 "황조가"에서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황조가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괴괴리'라는 대상을 매개로 하여 부각되고 있는데, '서경별곡'에서는 어떤 매개체 없이 직선적이다. 그만큼 감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별의 정한'은 '가시리'를 비롯한 여타의 고려 속요, 정지상의 '송인'과 같은 한시, 황진이의 시조, 민요의 '아리랑',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 많은 문학 작품에 한국 여인의 보편적 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

조선 전기의 학자들이 고려가요(高麗歌謠)를 낮추어 부른 명칭. 고려가요에는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노래가 많은데, 표현이 너무 사실적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시(國是)와 유교적 안목으로는 매우 못마땅하였으므로, 비방하는 뜻으로 부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고려가요가 망실되었고, 지금 전하는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등도 내용이 많이 수정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밖의 작품들을 들면, '만전춘(滿殿春)', '가시리', '서경별곡(西京別曲)', '청산별곡(靑山別曲)' 등이 있다.

▪ 고려 속요의 형태적 특성

고려 속요는 3·3·2, 혹은 3·3·3조의 3음보 연장체(聯章體)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연은 후렴구를 중심으로 전후절(前後節)이 나뉘는, 분절체(分節體) 형식을 취한다. 특히 다양한 후렴구는 민요적 성격을 반영하며,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매끄러운 리듬을 살리고 있다.

▪ 페미니즘(feminism)

여성억압의 원인과 상태를 기술하고 여성해방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운동 또는 그 이론. 19세기 중반에 시작된 여성 참정권 운동에서 비롯되어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페미니즘의 시초는 자유주의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공을 가로막는 관습적, 법적 제한이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의 원인이다. 따라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와 시민권이 주어진다면 여성의 종속은 사라진다고 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비판하면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참된 기회균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F.엥겔스는 여성억압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본주의가 바로 여성억압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기초한 법적·정치적 구조와 사회·문화적 제도가 여성억압을 가능하게 하는 것 외에 생물학적인 성(性)이 여성의 정체감과 억압의 주된 원인이며, 여성해방은 출산·양육 등의 여성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이 성별 특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하고, 여성억압은 노동자 억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한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동아대백과사전)

▪ 서경별곡

고려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속요. <<악장가사 樂章歌詞>>·<<대악후보 大樂後譜>>·<<시용향악보>>에 실려 있어 악곡 구조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자와 제작동기에 관한 기록이 없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청산별곡 靑山別曲>과 더불어 궁중악장 가운데 대표적인 속악의 하나로 조선 전기까지 궁중에서 애창되었다.

작품의 형식은 3음보 율격구조에다 모든 연의 끝에 후렴이 붙는 연장체(聯章體) 가요로서 전형적인 속요의 형태를 보인다. 이 작품은 음악적 측면에서는 <<악장가사>>에 수록된 형태대로 13연으로 분석되며, 그 여음과 후렴 또한 질서정연한 규칙성을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여음을 제외하고 통사론적으로 분석할 때는 3연의 구조를 가진다.

즉, 이 작품은 서경으로 시작되는 1연과, 같은 속요인 <정석가 鄭石歌>와 사실이 일치하는 2연과, 대동강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3연으로 구조가 분리된다. 여기서 2연은 이제현(李齊賢)의 <소악부 小樂府>에도 한역(漢譯)되어 있어, 당대에 널리 유행하였던 가요(민요)로 짐작된다.

이런 이유로 작품의 구조에 있어서 형태상·의미상의 괴리와 이질성을 보인다. 이것은 곧 이 작품의 형성이 제1연의 서경 노래, 제2연의 당대에 유행했던 민요, 제3연의 대동강 노래, 이렇게 세 가요(민요)를 당대에 새로 유입된 궁중의 속악 악곡에 맞추어 연마다 여음과 후렴을 붙여 합성·조절한 가요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도 한다.

또 이와는 달리, 각 연의 정조(情調)를 중시하여 제1연과 3연이 불길 같은 감정의 표출을 담은 여성의 사설임에 반해, 제2연은 싸늘한 이성(理性)의 소리로 된 남성의 사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남녀 사이의 대화를 담은 희곡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2연이 과연 남성적 정조인지는 의문이라 하겠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작품해설 1

청산(靑山)은 내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리예어 가논고

- * 청산 : 푸른 산. 여기서 청산의 속성은 '변치 않음'
- * 님의 정(情)이 : 님의 정이로다.
- * 변홀손가 : 변하겠는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 못니저 : 잊지 못하여
- * 우리예어 : 울면서 가면서. '올다+가다'의 복합어이다.
- * 가논고 : 가는가?

■ 해석

늘 푸른 청산은 나의 마음이고 매양 이리저리 흐르는 물은 임의 정과도 같다.
물이야 비록 흐르는 대로 흘러가더라도 청산이야 변할 수 있으랴.
그러나 흐르는 물도 청산을 잊지 못해 울며울며 흘러가는 것 같구나.

■ 핵심 정리

- 종류 : 평시조
- 성격 : 연정가, 애련(愛戀)의 노래
- 제재 : 연모의 정
- 주제 :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 출전 : <대동풍아>

■ 황진이

일명 진랑(眞娘). 기명(妓名) 명월(明月). 개성(開城) 출생. 중종 때 진사(進士)의 서녀(庶女)로 태어났으나, 사서삼경(四書三經)을 읽고 시(詩)·서(書)·음률(音律)에 뛰어났으며, 출중한 용모로 더욱 유명하였다. 15세 무렵에 동네 총각이 자기를 연모하다가 상사병(相思病)으로 죽자 기계(妓界)에 투신, 문인(文人)·석유(碩儒)들과 교유하며 탁월한 시재(詩才)와 용모로 그들을 매혹시켰다. 당시 10년 동안 수도(修道)에 정진하여 생불(生佛)이라 불리던 천마산(天馬山) 지족암(知足庵)의 지족선사(知足禪師)를 유혹하여 파계(破戒)시켰고, 당대의 대학자 서경덕(徐敬德)을 유혹하려 하였으나 실패한 뒤, 사제관계(師弟關係)를 맺었다.

당대의 일류 명사들과 정을 나누고 벽계수(碧溪守)와 깊은 애정을 나누며 난숙한 시작(詩作)을 통하여 독특한 애정관(愛情觀)을 표현했다.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등에 내어' 는 그의 가장 대표적 시조이다. 서경덕·박연폭포(朴淵瀑布)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렸다. 작품으로 《만월대 회고시(滿月臺懷古詩)》《박연폭포시(朴淵瀑布詩)》《봉별소양곡시(奉別蘇陽谷詩)》《영초월시(初月詩)》 등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해설 1

서경덕, 박연 폭포와 아울러 스스로 자신을 송도 삼절이라 일컬은 황진이, 아름다운 미모와 詩書音律(시서 음률)에 뛰어나고 묵화도 잘 쳐, 문인, 碩儒(석유)와 詩酒(시주)로 교우하며 그들을 매혹시켰고, 지족선사를 파계시켰는가 하면, 도도하기 이를 데 없었던 왕족 벽계수를 '청산리 벽계수야' 라는 시조 한 수로 도취하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서경덕에게만은 어쩔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연정을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그의 시조에 나타난 임은 곧 서경덕을 칭하는 것이라 한다.

■ 해설 2

이 시조는 나에 대한 님의 사랑이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이 넘치는 애정과 정열에 불타는 내 마음이라면, 그 밑으로 푸르름을 머금고 흐르는 '녹수'는 나의 임이 나에게 새겨 준 정이라 할 수 있다. 임이 정을 담고 흘러간 녹수야 지금 있건 없건, 임을 향한 청산의 마음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눈물을 뿌리고, 그 고개를 넘어 섰으니까 말이다.

▣ 작품해설 2

【시조】- 황진이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난 임의 정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니저 우리 예어 가난고

【현대어 풀이】

푸른 산은 나의 뜻이요, 푸른 시냇물은 님의 정이니
푸른 시냇물은 흘러흘러 가지만 푸른 산은 (녹수처럼) 변하겠는가
푸른 시냇물도 푸른 산을 못 잊어(잊지 못하여)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해설】

서경덕, 박연 폭포와 아울러 스스로 자신을 송도 삼절이라 일컬은 황진이는, 아름다운 미모와 詩書音律(시서 음률)에 뛰어나고 묵화도 잘 쳐, 문인, 碩儒(석유)와 詩酒(시주)로 교우하며 그들을 매혹시켰고, 지족선사를 파계시켰는가 하면, 도도하기 이를 데 없었던 왕족 벽계수를 '청산리 벽계수야' 라는 시조 한 수로 도취하게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러나 서경덕에게만은 어쩔 수 없는 여인으로서의 연정을 버릴 수 없었던 것으로, 그의 시조에 나타난 임은 곧 서경덕을 칭하는 것이라 한다.

【개관】

- ▶ 지은이 : 황진이(黃眞伊)
- ▶ 연대 : 조선 중기
- ▶ 갈래 : 평시조, 연정가(戀情歌), 애련가(愛戀歌).
- ▶ 성격 : 연정적(戀情的), 감상적, 대조적, 은유적, 상징적, 의지적.
- ▶ 표현 : 대구법, 은유법, 대조법. 감정이입(感情移入).
- ▶ 제재 : 청산, 녹수. 연모의 정.
- ▶ 주제 : 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일편단심(一片丹心)
- ▶ 출전 : <대동풍아(大東風雅)>

【구성】

- ▶ 초장 : 믿을 수 없는 임에의 갈등·상실감
- ▶ 중장 : 임을 향한 일편단심.
- ▶ 종장 : 임에 대한 믿음

【감상】

이 시조는 나에 대한 님의 사랑이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이 넘치는 애정과 정열에 불타는 내 마음이라면, 그 밑으로 푸르름을 머금고 흐르는 '녹수'는 나의 임이 나에게 새겨 준 정이라 할 수 있다.

임이 정을 담고 흘러간 녹수야 지금 있건 없건, 임을 향한 청산의 마음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눈물을 뿌리고, 그 고개를 넘어 섰으니까 말이다.

이 시조에서 청산은 변함없는 자신의 마음이고, 녹수는 임을 가리킨다. 나의 사랑은 청산같이 항상 변함이 없는데, 임의 정은 흐르는 물같이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임의 나에 대한 사랑이야 변하든 말든, 나의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항상 푸른 산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못 남성이 황진이를 찾아 들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하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 임에게 바치는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가만히 청산을 바라보고 녹수를 굽어보노라면, 평범한 인간도 철학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렇다, 자연을 자연으로

볼 줄을 아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넓히고, 깊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인생을, 세계를, 우주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우주를 볼 수 있는 심안(心眼)이 열린 사람은 인생이 창해일속임을 알게 되어, 진지 겸허한 인생관의 소유자가 된다고 하였다.

이 시조에서 '청산'과 '녹수', 변함없는 푸른 산과 자꾸만 흘러가서 한때도 머무르지 않는 물결, 변함없는 작자의 뜻과 변덕스러운 임의 정을 이것들에 비유한 착상이 평범하면서도 신선미가 넘친다.

여기서의 '청산'은 '불변하는 것'이며 곧 '나'와 동일시되고 있다. '녹수'는 '변화하는 것'으로 곧 '님'을 상징하고 있다. 이로써 녹수(님)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을 스스로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녹수의 흘러감'으로 표상되는, 인간이 지니는 숙명적 불안감과 허무감은 사대부들의 자연인식과는 근본적으로 인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녹수'나 '청산'은 다 같이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원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사대부의 시에서 변하는 인간과 대비되는 자연물들로서 이 두 소재가 다 함께 채택된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녹수의 흘러감, 즉 그 유한성에 주목함으로써 사대부들의 당위론적인 자연 인식과는 다른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다.

결국 나에 대한 임의 사랑이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에 대한 나의 마음은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청산'이 넘치는 애정과 정열에 불타는 내 마음이라면, 그 밑으로 푸르름을 머금고 흐르는 '녹수'는 임이 나에게 속삭여주던 정이라 할 수 있다.

청산은 녹수가 영원히 자신의 품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녹수는 더 좋은 경치를 향해 떠나간다. 그러나 흘러간 녹수야 지금 있건 없건, 임을 향한 청산의 마음이야 변할 까닭이 있겠는가? 그리고 저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보아 녹수도 청산을 잊지 못해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리라.

이 작품은 초장에서 대구의 형식을 통하여 '산'과 '수'의 대립, 변하지 않는 것(가변성)과 변하는 것(불가변성)의 대립을 표상하고 있는데, 불변하는 '청산'은 '나'와 동일시되고 변화하는 '녹수'는 '임'과 동일시된다. 종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물에 대해 부연함으로써 '녹수(임)'가 흘러 가도 '청산(나)'은 변하지 않을 것임을 노래하였다.

종장에서도 한 번 더, 임과 내가 어울려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공간인 '여기'를 떠나가는 임에 대해 비관적인 어조로 질문을 던진다. 종장에서 ' - 도'를 사용한 것은 실상 '청산은 녹수를 못 잊어 운다'는 자신의 마음을 녹수에 투사(投射)한 것인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녹수'를 가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읽었다는 점인데, 이는 일반 사대부들의 '녹수'에 대한 생각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녹수'의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에 주목하여, '항존성(恒存性)'과 '불변(不變)'을 읽어내고 그것을 충의(忠義)정신과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진이는 녹수의 '흘러가서 제 자리에 있지 않음'에 주목하고 있다. 즉 황진이는 '녹수의 흘러감'이라는 유한성에 주목함으로써 사대부들의 당위론적인 자연 인식과는 다른 이미지를 창출해낸 것이고, 황진이의 시조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작품 해설 1

흰구름 푸르네는 골골이 줌것논디
추상(秋霜)에 무든 단풍(丹楓) 꽃도곤 더 도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爲)하야 뫼빗출 썸여넬도다

- * 푸르네는: 푸른 시내.
- * 골골이: 골짜기마다
- * 줌것논디: 잠겨 있는데
- * 추상(秋霜): 가을 서리
- * 무든: 물든
- * 꽃도곤: 꽃보다 '도곤'은 비교 부사격 조사
- * 도해라: 좋아라, 아름다워라
- * 천공(天公): 하늘의 주인. 즉 조물주
- * 날을: 나를
- * 뫼빗출: 산의 빛깔을
- * 썸여넬도다: 꾸며냈도다

■ 해석

흰구름과 푸른 계곡 물은 골짜기마다 잠겨 있는데,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잎이 꽃보다 더 아름답구나.
조물주가 나를 위하여 산 빛을 꾸며 놓았도다.

■ 김천택

자 백함(伯涵)·이숙(履叔). 호 남파(南波). 평민 출신으로 숙종 때 포교를 지냈다. 창에 뛰어났으며 시조도 잘 지어 《해동가요》에 57수를 남겼고, 1728년(영조 4)에는 시가집 《청구영언(靑丘永言)》을 편찬, 국문학사상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같은 평민 출신 노가재(老歌齋) 김수장(金壽長)과 함께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에 동인(同人)을 결집, 시조에 신품을 불어넣었다. 그때까지 시조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학자·문인의 시조가 한정(閑情)을 즉흥적으로 노래한 도학적·관념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조는 제재를 일상생활 속에서 찾았고, 그 묘사가 사실적이었으며 해학이 풍부하였다. 후진양성과 시조의 정리·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 작품 해설 2

흰 구름 푸른 너는 골골이 잠겼는디
추상(秋霜)에 물든 단풍(丹楓) 봄꽃도곤 더 조해라
천공(天公)이 날을 위하야 뉘 빗출 쏘여 너도다.

■ 구조 분석 :

- 1행 : 골짜기마다 잠긴 흰 구름
- 2행 : 단풍과 봄꽃 비교
- 3행 : 가을의 아름다움 예찬

■ 전문 풀이 :

흰 구름이 두리둥실 떠 있고, 푸른 안개는 골짜기마다 잠겨 있는데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도 더 아름답구나.
조물주께서 나를 위하 산 빛을 꾸며 낸 것이 분명하구나.

■ 핵심정리

- 연대 : 조선 전기
- 형식 : 평시조, 단시조
- 주제 : 봄밤의 애상적인 정감
- 표현상의 특징:

① 예찬적

■ 이해와 감상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감각적인 표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 작품 해설 3

흰 구름 푸른 내는 골골이 잠겼는데

색채 이미지 대비

추상(秋霜)에 물든 단풍(丹楓) 봄꽃도곤 더 조해라

도곤: 비교 부사격 조사(-보다), 비교법 사용

☞ 중국 당나라의 시인 '두목'의 '산행'이라는 한시의 구절이 생각나게 합니다.

상엽홍어이월화(霜葉紅於二月花) : 서리에 붉은 단풍잎이 2월의 꽃(봄꽃)보다 더 붉네.

천공(天公)이 날을 위하여 뉘 빗칠 꿈여 내도다.

천공 =하느님, 가을 산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

흰 구름 푸른 안개는 골짜기마다 잠겼는데

가을 서리에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좋아라(아름답다)

하느님이 나를 위하여 산빛을 꾸며 내었도다.

■ 주제: 가을 단풍의 아름다운 예찬

■ 특징: ①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함

② 색채 이미지를 대비하여 묘사함

화자는 가을에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봄에 피는 꽃보다 더 좋다고 말하면서 비교의 방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작가 : 김천택(생몰년-태어난 해와, 죽은 해-알 수 없음)

평민 출신으로 조선 영조 때의 가객(시조 등의 노래를 전문적으로 잘 불렀던 사람)으로, 호는 남파. 최초의 시조집인 '청구영언'을 편집하였고, 남긴 시조가 57수에 달한다. 경정산가단-조선(朝鮮) 영조(英祖) 때 시조가단의 중진인 김천택(金天澤) 등(等)을 중심(中心)으로 한 시단(詩壇)-에 속한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청산아 웃지 마라. 백운아 조롱 마라

청산 : 푸른 산, 백운 : 흰 구름 (청산과 짝이 되는 말)

백발 흥진에 내 즐겨 다니더냐

백발 흥진 : 늙어 흰머리가 되어서도 속세, 곧 벼슬살이를 함.

성은이 지중하시니 갑고 가려 하노라

성은 : 임금의 거룩한 은혜, 넘치도록 많고 큰 은혜 지중 : 더할 수 없이 중함. 지극히 귀중함.

■ 현대어 해석

청산아 나를 비웃지를 말라 흰 구름아 나에게 농을 하지 말라

늙어 흰머리가 되어서도 벼슬살이를 하는 것을 내가 즐겨서 하는 것인 줄 아느냐?

임금님 은혜가 하도 무거워서 내가 다 갚고 나서 강호로 가려고 한다.

■ 해제

이 작품은 임금을 보필하느라 세속에서 살고 있는 화자가 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소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시조이다. 지금 세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성은에 보답하기 위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은 자연에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주제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소망

■ 표현법 : 의인법, 설의법, 대구법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해설

말 업슨 청산(靑山)이요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靑風)이요, 님즈 업슨 명월(明月)이라.
이 중(中)에 병(病) 업슨 이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으리라.

- * 태(態) 업슨 : 일정한 모양이 없는.
- * 갑 업슨 :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공짜의.
- * 님즈 업슨 : 주인이 따로 없는
- * 분별(分別) 업시 : 이런 저런 시끄러운 일에 신경 쓰지 않고.

■ 해석

아무 말이 없는 것은 청산이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것이 흐르는 물이로다.
값을 치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것은 맑은 바람이요, 따로 임자가 없는 것은 밝은 달이라.
이 속에서 아무 병이 없는 내가 근심 걱정 없이 늙어가리라.

■ 핵심정리

- 갈래 : 평시조
- 성격 : 강호 한정
- 제재 : 자연
- 주제 :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려는 마음
- 출전 : <화원학보>

■ 성혼

본관 창녕(昌寧). 자 호원(浩源). 호 우계(牛溪). 묵암(默庵). 시호 문간(文簡). 좌의정이 추증된 성수침(成守琛)의 아들.
어머니는 파평(坡平) 윤씨. 서울 순화방(順和坊)에서 태어났으며, 1539년 파산(坡山) 우계로 이사하면서 경기도 파주에서 자랐다.

17세에 신여량(申汝樑)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그해 진사 .생원 양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백인걸(白人傑)에게 《상서(尙書)》를 배웠으며, 당시 같은 고을에 살던 이이(李珥)와 도의지교를 맺었다. 선조 초년에 학행으로 천거되어 참봉(參奉) .현감 등을 제수받았으나 출사하지 않고, 파산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동서분당기에는 이이 .정철(鄭澈) 등 서인과 정치노선을 함께 하였다. 1589년 기축옥사(己丑獄事)로 서인이 정권을 잡자 이조참판에 등용되었으며, 이때 북인 최영경(崔永慶)의 옥사 문제로 정인홍(鄭仁弘) 등 북인의 강렬한 비난을 받았다. 1592년 임진왜란 중에는 세자의 부름으로 우참찬이 되었으며, 1594년 좌참찬으로서 영의정 유성룡(柳成龍)과 함께 주화론을 주장하였다.

학문 경향은 이이와 1572년부터 6년간에 걸쳐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을 논한 왕복서신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서신

에서 이황(李滉)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지지,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비판하였다. 이이는 그의 학문을 평가하여 “의리상 분명한 것은 내가 훌륭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외손인 윤선거(尹宣舉)는 그가 학문에 있어서 하나하나 실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의 학문은 이이와 함께 서인의 학문적 원류를 형성하였으며, 문인으로는 조헌(趙憲)·황신(黃愼)·이귀(李貴)·정엽(鄭曄) 등이 있다. 그의 학문은 이황과 이이의 학문을 절충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외손인 윤선거, 윤증(尹拯)에게 계승되면서 소론학파의 사상적 원류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1602년 전일에 기축옥사에 관련된 연유로 삭직되었으나, 1523년 인조반정 이후 복관되었다. 좌의정에 추증, 1581년(숙종 7)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창녕의 물계서원(勿溪書院), 해주 소현서원(紹賢書院), 파주 파산서원(披山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문집 《우계집》과 저서에 《주문지결(朱門旨訣)》 《위학지방(爲學之方)》 등이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해설

말 없는 청산과 꾸민 모양 없는 물을 벗어나 청풍명월을 즐기며, 세상의 속된 욕심으로 근심할 것 없이 마음 편하게 살아보겠다는 심정이 엿보인다. 논어의 '인자요산(仁者樂山), 지자요수(知者樂水)'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 이 시조는 자연 속에 묻혀 세속적인 근심, 걱정은 잊은 채 유유자적(悠悠自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소탈하게 읊고 있는 작품이다.

말 업슨 靑山(청산)이요,態(태) 업슨 流水(유수)ㅣ로다.
 갓 업슨 淸風(청풍)이요, 님즈 업슨 明月(명월)이라.
 이 中(중)에 病(병) 업슨 이 몸이 分別(분별) 업시 늙으리라

◎ 핵심정리

- 갈래 : 평시조
- 성격 : 풍류적, 달관적, 한정가
- 주제 : 자연을 벗 삼아 사는 즐거움
- 표현 ① 자연물에 가치를 부여하여 달관의 경지를 형상화함
 ② 대구의 묘미를 살려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적 효과를 높이고 있음

말, 태, 갓, 임자	↔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인위적 가치, 유한한 존재 → 병 (근심, 걱정) 유발		자연적 가치, 무한한 존재 → 조화 속에서 달관의 삶 누림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작품해설 1

우후요(雨後謠)

비온 뒤의 노래

윤선도

▣ 제목 읽기 ▣ 이 시조는 단시조이지만 제목이 붙어 있는 작품이다. 비 온 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반대로 굶은 비가 내리는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까? 시인이 표현하려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세상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 본문 분석

구준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깊단 말가(대구)
간신, 불충한 신하 간신, 불충한 신하
압내회 기픈 소희 다 맑았다 흐느낀나
 깊은 연못에 하는 구나
 (어지러운 조정)
진실로 맑디온 맑아시면 간긴 시서 오리라
 맑기가 맑아졌으면 갓끈 씻어 오리라
 (다시 조정에 나가고 싶은 심정)

■ 현대어 풀이

굶은 비(간신, 불충한 신하) 개었던 말인가, 흐리던 구름이 걷혔단 말인가.
앞 내의 깊은 못(어지러운 조정)이 다 맑았다고 하는구나.
진실로 (조정이) 맑디 맑아졌으면 나의 갓끈을 씻어 오리라(다시 조정에 나가고 싶다).

■ 창작 배경

윤선도(尹善道)는 그가 30세 때인 1616년(광해군10) 당시 예조판서인 이이첨 일파의 문란한 정치행태에 대해 탄핵상소를 했다가 미움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이 시조는 유배생활을 하던 1618년 그때의 재상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을 듣고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산유고(孤山遺稿)>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어떤 재상이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 마침 오래 내리던 비가 개고 구름이 걷히므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 감상 마무리

<화자의 상황과 정서>

- 1. 비가 개고 비를 내리게 한 구름이 걷혔다. 앞 냇가 깊은 연못까지 다 맑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화자는 연탄적 어조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즉 임금의 총명을 가리던 (간신배) 들이 물러가고 (어지러운 조정)이 맑은 연못처럼 깨끗해진 상황에 화자는 기뻐하고 있다. 나라일을 근심하는 화자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 2. 또한 화자는 정말로 맑아졌다면 그곳에 갓끈을 씻겠다고 말한다. 즉 간신배와 불충한 무리가 사라진 조정에 나아가 다시 벼슬길에 나가고 싶은 화자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다.

<핵심 시어 및 시구>

1. (구준비, 흐리던 구름)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배' 또는 '불충한 무리'를 의미함.
2. (기쁜 소)는 간신배와 불충한 무리가 판을 치는 '어지러운 조정'을 의미하며, (뭍았다 흐늑손나)는 부정한 세력들이 사라진 조정에 대해 기뻐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임.
3. (간긴 시서 오리라)는 맑아진 조정에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은 바람을 의미함.

<표현상의 특징>

1. 대구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 조정의 상황을 자연현상에 비유하고 있다.

<주제 및 감상>

1. 성격 : 우의적, 우국적
2. 주제 : 정사가 올바르게 된 기쁨과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은 바람
3. 한 줄 감상 : 간신배와 불충한 무리가 물러가 어지럽던 조정이 제 자리를 잡은 상황을 기뻐하며 그곳에서 다시 정치적 꿈을 피우고 싶은 바람을 노래한 작품으로, 화자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정치에 대한 바람을 엿볼 수 있다.

■ 구성 및 형식

『고산유고(孤山遺稿)』 제6권 하편 별집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30세 때인 1616년 당시 예조판서 이이첨(李爾瞻) 일파의 문란한 정치를 탄핵하다가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이 작품은 그곳에서 지은 것이다.

■ 내용 및 평가

작자 자신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어떤 재상이 자신의 잘못을 고쳤다는 말을 듣고, 마침 오래 내리던 비도 개고 구름이 걷히므로 이 작품을 지었다고 한다.

구준 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걷단 말가,
 압 내희 기쁜 소히 다 뭍았다 흐늑손다
 진실로 뭍디 온 뭍아시면 간긴 시서 오리라

여기에서 '긋은 비'와 '흐린 구름'은 다같이 임금의 총명(해)을 가리는 충성스럽지 못한 신하들을 가리킨다. 흐린 구름이 긋은 비로 내려서 이루어진 것이 흐린 못[沼]이니 어지러운 조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구름이 걷히고 긋은 비가 개어 깊은 못이 다 맑아졌다고 하니, 정말 그렇다면 갓끈을 씻어 매고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나랏일을 근심하는 작자의 심정을 날씨의 변화에 비교하여 나타낸 작품이다.

■ 엮어 읽기

간신배에 대한 비판과 우국을 노래한 작품으로는 이존오의 시조 '구름이 무심튼 말이', 이색의 시조 '백설이 츠자진 골에', 유응부의 시조 '간밤에 부던 바람에' 등을 들 수 있다. 함께 읽어보자. 이 시조들에서도 '구름'과 '바람'이 '부정한 세력'을 의미한다.

▣ 작품해설 2

구즌비 개단 말가 흐리던 구름 견단 말가
압내희 기픈 소히 다 뽉앗다 흐늑순나
진실로 뽉디옴 뽉아시면 갓긴 시서 오리라

- <고산유고>

[전문 풀이]

긱은 비가 개엇던 말인가, 흐리던 구름이 개엇단 말인가.
얏 내의 깊은 몯이 다 말앗다고 하는구나.
진실로 뽉디뽉앗다면 나의 갓끈을 씻어 오리라.

■ 어구풀이

개단 말가 : 깬단 말인가
견단 말가 : 견헛단 말인가
내희 : 냇물의
흐늑순나 : 하는 것인가
뽉디옴 : 뽉기만

■ 핵심 정리

작자 : 윤선도
갈래 : 평시조
제재 : 긱은 비
주제 : 비갠 후의 감회

■ 감 상

조선 광해군 때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가 지은 단시조(單時調). 작자가 31세 때인 1618년(광해군 10)에 함경도 경원(慶源)에서 귀양살이할 때 지은 것으로서, 긱은비 개인 뒤의 작자의 심경(心境)을 노래했다.

침울하고 삭막한 유배지 생활이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긱은 비가 내리니 우수(憂愁)를 더욱 돋구는 듯 하다가 때마침 그 때의 재상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을 들으니 이제는 지루한 비도 개고 구름도 견혀 가쁜한 기분이 솟는다는 내용이다.

작가의 초기 작품이면서도 탁의(託意)가 교묘(巧妙)하고 관념과 구상이 융합된 수작(秀作)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 현대어 해석

불 아니 땃지라도 절로 익는 솔과

여물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져 잘 걷는 말과, 길쌈 잘하는 기생첩과, 술이 샘솟는 주전화, 양부로 낫는 검은 암소, .

평생 이 다섯 가지 둘 양이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 해제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소망을 재치 있게 그리고 있는 사설시조이다. 열거된 다섯가지는 주로 남성의 입장에서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 서민들의 일상적 노동과 연결될 수 있다. (땃감 나무를 구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절로 익는 솔을 바란 것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소박한 삶을 바랄 만큼 당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 : 소박한 삶에 대한 소망, 고달픈 삶, 노동에 대한 애환,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 표현법 : 열거법

■ 성격 : 해학적

■ 구성 : 초, 중장 : 고생 없이 살기 위해 바라는 것들

중장 : 풍족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동경

■ 핵심 정리

작자 : 미상(未詳)

갈래 : 사설 시조

성격 : 한정가, 사실적

표현 : 열거법

<참고> 사설시조

■ 사설시조에 대하여

산문 정신과 서민 의식을 배경으로 탄생한 사설시조는 시조가 지닌 3장체의 형태적 특성을 살리면서 낯은 허울을 깨뜨리는 데 공헌했다. 지난 날의 영탄이나 서경의 경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폭로적인 묘사와 상징적인 암유(暗喻)로써 그 표현 기교를 바꾸어서 애정, 거래(去來), 수탈, 패륜(悖倫), 육감(肉感)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루면서 지난 시대의 충의에 집착된 주제를 뒤엎었다.

형식면에서는 ①사설조로 길어지고, ②가사투, 민요풍이 혼입(混入)하며, ③대화가 많이 쓰이고, ④새로운 중장 문구

(文句)를 개척하였다.

내용면에서는 ①구체적, 서민적인 소재와 비유가 도입되고, ②강렬한 애정과 육욕(肉慾)이 표현되며, ③어희(語戲), 재담(才談), 욕설이 삽입되고, ④거리낌없는 자기 폭로, 사회 비판 등이 다루어졌다.

■ 사설시조의 작자층

사설시조는 그 형식이나 주제는 물론이고, 작자층에서도 평시조와 구별된다.

평시조의 작자층이 양반 사대부 중심이었던 데 비해, 사설시조는 가객들을 비롯한 중간층 부류의 작자들이 지은 작품이 많으며, 그 내용이나 어법상 서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의해 지어지고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작품도 여러 편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대부들이 주로 즐긴 평시조의 세계에 비하여 시정(市井)의 현실적 삶을 주로 표현했다.

또 골계미와 해학미를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으며, 시정(市井) 생활의 건강함과 발랄함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양반 사대부들 또한 사설시조 창작에 나서서, 현전하는 사설시조 가운데는 작자가 사대부로 명시된 작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된 작품이 꽤 많다는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그러나 사설시조를 지을 정도의 수준을 보일 수 있는 작자층은 적어도 글을 아는 식자층, 즉 주로 중인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 사설시조의 미의식

사설시조는 우아한 기품과 균형을 강조하는 평시조와는 달리 거칠면서도 활기찬 삶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사설시조를 지배하는 원리는 웃음의 미학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날카로운 관찰, 중세적 고정 관념을 거리낌없이 추락시키는 풍자, 고달픈 생활에 대한 해학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아울러, 남녀 간의 애정과 기다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개는 직선적인 언어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종래의 관습화된 미의식을 넘어서서 인간의 세속적 모습과 갈등을 시의 세계 안에 끌어들이므로써 사설시조는 문학의 관심 영역을 넓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미의식은 조선 후기의 변모된 세계관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후 우리 근대 문학의 바탕을 이루기도 한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황(十齋惶惶)¹⁾ 하노라.

▶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

[어휘 풀이] 십재황황(十載惶惶) : 마음이 급해서 십 년을 허둥지둥 한다는 뜻
[현대어 풀이]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과 효뿐이로다.
이 두 일 아니하면 짐승과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년을 허둥대노라.

[2] 계교(計巧)¹⁾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세라.
부급동남(負笈東南)²⁾하여 여공불급(如恐不及)³⁾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 등용의 좌절과 안타까움

[어휘 풀이] 1) 계교(計巧): 서로 견주어 봄 2) 부급동남(負笈東南) : 책 상자를 지고 먼 곳에 있는 스승을 찾아서 공부 하러 감 3) 여공불급(如恐不及) : 어떤 일을 하라는 대로 실행하지 못할까 하여 마음을 졸임
[현대어 풀이]
견증이 이렇다가 공명이 늦었어라.
스승을 찾아 사방을 헤매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3]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자연의 대유]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漁鳥)* 는 자한한(自閑閑) 하였으니
조만(早晚)에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기거하고자 함

[어휘 풀이] 1) 무심어조: 공명에 욕심이 없는 물고기와 새
[현대어 풀이]
비록 못 이루어도 자연이 좋으니라.
무심한 새와 물고기는 절로 한가하였으니
머지않아 세상의 일을 잊고 너(물고기와 새)를 좇으려 하노라.

[4]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기어라.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 벼슬에 대한 욕망과 자연 사이의 갈등

[현대어 풀이]
자연에 놀러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기는 바에 어긋나구나.
홀로 갈림길에 서서 갈 곳 몰라 하노라.

[5] 어지게 이러그러 이 몸이 엇디할고
행도(行道)도 여렵고 은처(隱處)도 정(定)티 아났다
언제야 이 뜻 결단(決斷)하야 종아소락(從我所樂) 하려뇨

▶ **자신이 즐기는 일을 하지 못한 안타까움**

[현대어 풀이]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도를 행하기도 어렵고, 은거할 곳도 정하지 아니 하였다.
언제야 이 뜻을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를 좇으려뇨?

[6] 하려하려 하되 이 뜰 못하여라
이 뜻 하면 지락(至樂)이 잇나니라
우습다 엇그제 아니던 일을 닐 올타 하던고

▶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함에 자조**

[현대어 풀이]

하려 하려 하되 이 뜻을 못 하였네
이 뜻을 하면 지극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우습다! 엇그제 아니하던 일을 누가 옳다 하던고

[7] 말리 말리 하되 이 일 말기 어렵다.
이 일 말면 내 몸이 한가하다.
어찌랴 엇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겠네.

▶ **세속적인 출세에 대한 내적 갈등**

[현대어 풀이]

그만두려하되 이 일 그만두기 어렵다
이 일 그만두면 내 몸이 한가하다
어찌랴! 엇그제 하던 일이 다 그른 줄 알았네

[8] 나아가면 치군택민(致君澤民)¹⁾ 들어오면 조월경운(釣月耕雲)²⁾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 가리라.

▶ **자연 속에 은거하는 즐거움**

[어휘 풀이] 1) 치군택민(致君澤民) : 임금을 섬기며 백성에게 은덕이 미치게 하고 2) 조월경운(釣月耕雲) : 달빛 아래
고기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

[현대어 풀이]

나아가면 임금 섬겨 백성에 은덕 미치고 들어오면 달빛 아래 고기 낚고 밭을 가네
총명하고 밝은 군자는 이것을(은둔생활)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귀는 위태하니 가난한 삶을 살아가리.

[9] 청산(靑山)이 벽계임(碧溪臨)하고 계상(溪上)에 연촌(烟村)이라
초당(草堂) 심사(心事)를 백구(白鷗)인들 제 알랴
죽창(竹窓) 정야(靜夜) 월명(月明)한데 일장금(一張琴) 잇나니라.

▶ **고요한 밤의 정취, 촌락의 풍경**

[현대어 풀이]

청산이 시냇가에 있고 시내 위에 내(안개) 낀 마을이라.
초당의 마음을 백구(흰 갈매기)인들 제 알겠는가?
대살 창문 고요한 밤 달 밝은데 한 대의 거문고가 있느니라.

[10] 궁달(窮達) 부운(浮雲) 갖치 보야 世事 이저 두고
호산(好山) 가수(佳水)의 노는 뜻을
원학(猿鶴)¹⁾이 내 벗 아니어든 어니 분이 아라실고.

▶ **세상사 잊고 자연 속에 사는 뜻, 안분지족의 자세**

[어휘 풀이] 1) 원학(猿鶴) : 원숭이와 학, 원숭이와 학은 풍요롭고 부귀한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대어 풀이]

빈궁과 영달(신분이 높고 귀하게 됨)이 뜬구름처럼 보여 세상사 잊어 두고,

좋은 산 아름다운 물에 노는 뜻을

원숭이와 학[원숭이와 학은 예전에 정원에서 기르던 동물로 풍요롭고 부귀한 생활의 상징]이 내 벗 아니거든 어느 분이 알아줄꼬?

[11]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죽정(竹庭) 송함(松檻)¹⁾에 일점진(一點塵)도 없으니

일장금(一張琴) 만축서(萬軸書) 더욱 소쇄(瀟灑)[맑고 깨끗하여 속되지 않은 상태]하여라

▶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즐거움과 청빈한 삶**

[어휘 풀이] 1) 송함 : 솔기둥

[현대어 풀이]

바람은 절로 맑고 달은 절로 밝다

대나무 정원 솔기둥에 한 점 먼지 없으니

거문고 만 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 더욱 맑고 깨끗하여라.

[12] 제월(霽月)¹⁾이 구름 뚫고 솔 끝에 날아올라

십분청광(十分淸光)이 벽계(碧溪) 중에 비졌거늘

어디 있는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좇아오는가.

▶ **비 갠 밤에 자연과 즐기는 물아일체의 경지**

[어휘 풀이] 1) 제월: 비에 씻긴 달

[현대어 풀이]

비에 씻긴 달이 구름을 뚫고 소나무 끝에 날아올라

충분한(가득찬) 맑은 빛이 푸른 시냇물에 드리워 있거늘

어디선가 무리 잃은 갈매기는 나를 좇아 오는가?

[13] 날이 저물거늘 나외야 할 날 업서

송관(松關)을 달고 월하(月下)에 누어시니

세상에 텃글 마음이 일호미(一毫味)도 업다.

▶ **속세를 잊고 살아가는 삶**

[현대어 풀이]

날이 저물거늘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 걸어 달고 달빛 아래에 누었으니

세상에 티끌 같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다.

[14] 월색(月色) 계성(溪聲) 어섯겨 허정(虛亭)의 오나날

월색(月色)을 안촉(眼屬)하고 계성(溪聲)을 이촉(耳屬)해

드르며 보며 하니 일체(一體) 청명(淸明)하야라.

▶ **정자에서 느낀 자연의 아름다움**

[현대어 풀이]

달빛과 냇물소리 뒤섞여 빈 정자로 오거늘.

달빛은 두 눈으로 보고 물소리는 두 귀로 들어
들으며 보며 하니 모두가 깨끗하고 밝구나.

[15] 주색(酒色) 좇자 하니 소인(騷人)의 일 아니고
부귀(富貴) 구(求)차 하니 뜻이 아니 가네
두어라 어목(漁牧)이 되오야 적막빈(寂寞濱)에 놀자.

▶ 주색과 부귀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노닐

[어휘 풀이] 1) 소인: 시인을 뜻함. = 騷人墨客

[현대어 풀이]

주색을 좇자 하니 문사(글 공부하는 선비)의 일이 아니고
부귀를 구하고자 하니 뜻이 가지 않네
두어라 어부 목동이 되어 적막한 물가에 놀자.

[16] 행장(行藏) 유도(有道)하니 바리면 구테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산지북(水之北) 병들고 늘근 날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하나뇨.

▶ 벼슬에서 물러나는 도

[어휘 풀이] 1) 행장유도: 세상에 나감과 물러감에도 도가 있음 2) 산지남 산지북 병들고 늘근 나: 서울에서 벼슬을 많이 하며 늙은 나 3) 회보미방: 어지러운 나라를 구할 보물을 간직함

[현대어 풀이]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도가 있으니 버리면 구태여 구하랴.
산 남쪽 물 북쪽(서울)에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나라 구할 보물 가졌다고 오라 말라 하느냐?

[17] 성현(聖賢)의 가신 길히 만고(萬古)에 한가지라

은(隱)커나 견(見)커나 도(道) | 언디 다르리

일도(一道) | 다르디 아니커니 아무덴들 엇더리

▶ 은둔하거나 벼슬길에 나아가거나 한 가지 도(道)임을 인식, 어느 곳에 거하든지 도를 추구하겠다는 다짐.

[현대어 풀이] 성현이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

숨거나 나아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한 가지 도(道)이오 다르지 않으니 아무 덴들 어떠하리

[18] 어기(漁磯)에 비 개거늘 녹태(綠苔)로 독글 삼아

고기를 헤이고 낙글 뜻을 어이하리

섬월(纖月)이 은구(銀鉤) | 되어 벽계심(碧溪心, 碧溪山)에 잠겼다.

▶ 낚시하며 바라 본 달밤의 정경, 달밤에 낚시하는 흥취

[어휘 풀이] 1) 섬월: 초승에 뜨는 가느다란 달

[현대어 풀이]

자갈 깔린 물가(낚시터)에 비 개거늘 푸른 이끼를 돛을 삼아
고기를 헤아리며 낚을 뜻을 어이하리.
초승달이 은낚시 되어 푸른 물(푸른 산)에 잠겼구나.

[19] 강가(江干)에 누워서 강수(江水) 보는 뜻은

서자여사(逝者如斯)¹⁾하니 백년인들 먼근이로

십 년 전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얼음 녹 듯한다

▶ 속세의 집착에서 벗어나

[어휘 풀이] 1) 서자여사: 가는 것이 저와 같으니

[현대어 풀이]

강가에 누워서 저 강물 보는 뜻은
지나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 백 년인들 길겠느냐
십 년 전 속세 집착이 얼음 녹듯 하는구나.

▣ 작품 해설 1

■ 요점 정리

- 지은이 : 권호문
- 연대 : 조선 전기
- 갈래 : 전 19수의 연시조, 평시조
- 성격 : 유교적, 교훈적, 은일적, 전원적
- 표현 : 대구법, 대조법, 설의법, 과장법, 열거법
- 제재 : 제 7수 - 출처(出處), 제 8수 - 빈천거(貧賤居)
- 구성 : 작품 전체가 현실세계로부터 일탈하여 강호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 1연에서는 작자의 마음이 현실세계에 이끌려(충효관념으로 나타남.) 마음의 방향을 거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시 작자의 마음을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항(十載惶惶)하노라”라고 표현하였다.

제4·5연을 전후하여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강호생활을 즐기자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9~15연에 이르러서는 자연 속에서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삶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고히 한다.

그후에, 마지막 제19연에서 “강간(江干)에 누어서 강수(江水)보 든 서자여사(逝者如斯)◆니 백세(百歲)인 먼근이로 십 년 전(十年前)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어 녹듯 ◆다.”라고 끝맺는다. 즉 첫연에서의 현세에 대한 미련의 감정이 '얼음 녹듯' 해소되었음을 적고 있는 것이다.

- 주제 : 유교적인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소망
- 특징 : 한자 표현이 많으나, 단아하고 우아한 풍취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맹사성이나 윤선도의 작품과는 다른 기품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를 노래한다기보다는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회가 드러나 있으나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고 자연의 감상을 통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의의 : 퇴계 이황의 영남 학풍을 계승, 강호가도의 맥을 잇고 있고, 인간적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제시됨
- 출전 : 송암집

■ 이해와 감상

조선 선조 때 권호문(權好文)이 지은 연시조로 모두 19수로, 그의 문집 '송암별집 松巖別集'에 수록되어 있다. 각 연은 독자적인 주제를 개별적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맥락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짜여 있어 시상과 주제의 전개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벼슬길과 은거생활의 갈등에서부터,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담담한 심회를 적어 내려간다. 이어서 현실세계의 티끌을 초월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 1수에 덧보태어 끝맺었다.

작품 전체가 현실세계로부터 일탈하여 강호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 1연에서는 작자의 마음이 현실세계에 이끌려(충효관념으로 나타남.) 마음의 방향을 거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시 작자의 마음을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항(十載惶惶)하노라”라고 표현하였다.

제4·5연을 전후하여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강호생활을 즐기자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9~15연에 이르러서는 자연 속에서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삶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고히 한다.

그후에, 마지막 제19연에서 “강간(江干)에 누어서 강수(江水)보든 서자여사(逝者如斯)◆니 백세(百歲)인 면근이로 십년 전(十年前)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어 녹듯 ◆다.”라고 끝맺는다. 즉 첫연에서의 현세에 대한 미련의 감정이 '얼음 녹듯' 해소되었음을 적고 있는 것이다.

작자는 이렇게 강호자연에 침잠하는 삶을 통해 현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해소한 듯이 선언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현실과의 끈끈한 맥에서 출발하여 현실과의 관련성에서 끝맺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은, 작자의 본심이 강호에 있음이 아니라 현세에 있음을 반증한다.

즉, 현실의 근심을 잊기 위하여 처사적(處士的) 삶을 선택하지만, 무위자연의 노장적(老莊的)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념으로 허구화된 자연의 공간 속에서 현세의 불평과 시름을 치유하고자 할 뿐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사대부적인 은일 자세 때문이다. 제8연에 “출(出) 惻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 惻면 조월경운(釣月耕雲)”이라 노래한 것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이러한 현세 긍정의 끈끈한 맥은 다음과 같은 심적 갈등의 내면표출이라는 문학성을 낳는다.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聖主)를 바리레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귀예라

호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제4연).

실제로 작자는 현실에 대한 불평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를 지었음을 밝힌 바 있다.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 살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은둔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후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여 작자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참고문헌》 松巖別集, 閑居十八曲小考(尹榮玉, 國語國文學研究 16, 嶺南大學校, 1974).(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심화 자료

권호문(權好文)

1532(중종 27)~1587(선조 20).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教授) 규(淚)의 아들이다. 1549년(명종 4) 아버지를 여의고 1561년 30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564년에 어머니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무민재(無悶齋)를 짓고 그곳에 은거하였다.

이황(李滉)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같은 문하생인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만년에 덕망이 높아져 찾아오는 문인들이 많았다.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56세로 일생을 마쳤으며, 묘지는 안동부 서쪽 마감산(麻甘山)에 있다.

안동의 송암서원(松巖書院)에 제향되었다. 그는 평생을 자연에 묻혀 살았는데, 이황은 그를 소쇄산림지풍(瀟灑山林之風)이 있다고 하였고, 벗 유성룡도 강호고사(江湖高士)라 하였다. 저서로는 《송암집》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경기체가 변형형식인 <독락팔곡 獨樂八曲>과 연시조인 <한거십팔곡 閑居十八曲>이 《송암집》에 전한다. 《참고문헌》 松巖集, 朝鮮詩歌史綱(趙潤濟, 博文出版社, 1937).(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작품 해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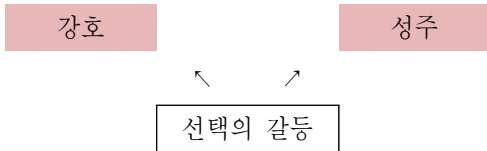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해제 : <한거십팔곡>은 자연에 은거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한 총 19수의 연시조이다. 그러나 강호한정(江湖閑情)을 노래한 일반적인 시조들과 달리, 이 작품에는 벼슬길에 나서 입신양명(立身揚名)하는 삶에 대한 미련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조선 선조 때 권호문(權好文)이 지은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으로 벼슬길과 은거 생활의 갈등에서부터,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현실세계를 초월한 자신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다른 연시조 작품과는 달리 각 연이 독자적인 주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노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의미상의 맥락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시상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가는 평생 자연에 머물며 자신의 유학자적인 이상을 펼치고자 했던 전형적인 처사로, 정치적 실패나 좌절 같은 쓰라린 체험 없이 스스로 은거하여 치사 한적(致仕閑寂)의 감회를 노래한 '한거십팔곡'은 오히려 강호 문학의 진정성을 더해 준다. 이 작품에서의 자연은 현실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나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언제나 작가가 함께 하고픈 물아일체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서의 삶을 통해 작자의 실존적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닌다.

- 갈래 : 연시조(전 19수), 평시조
- 연대 : 조선 선조 때
- 성격 : 전원적, 은일적, 유교적
- 제재 : 자연애와 충군(忠君) 의식
- 주제 : 강호 생활을 즐기려는 마음과 현실에 충성하려는 마음 사이의 갈등

■ 특징

- 강호 한정을 즐기려는 것이 주된 정서이기는 하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자연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연을 바라보는 심정을 고백함
- 의의 : 퇴계 이하 이래의 강호가도의 후기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어 작자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님



■ 구성

첫째 수(4수) : 벼슬에 대한 욕망과 자연 사이에서의 갈등

둘째 수(7수) : 지난날 속세에의 미련에 대한 반성

셋째 수(8수) : 자연 속 안분지족에의 다짐

넷째 수(11수) :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즐거움과 청빈한 은사의 삶

다섯째 수(13수) : 탈속의 여유

▣ 작품 해설 3

▣ 핵심 정리

■ 갈래 : 평시조(연시조)

■ 특징

- 한정가의 성격을 띠지만, 입신양명에 대한 작가의 미련이 담겨 있음.
- 한자 표현이 많으나, 단아하고 우아한 풍취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맹사성이나 윤선도의 작품과는 다른 기풍이 있다.
- 자연의 아름다움 자체를 노래한다기보다는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회가 드러나 있으나 표현이 직접적이지 않고 자연의 감상을 통해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 구성 : 작품 전체가 현실세계로부터 일탈하여 강호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 제재 : 벼슬길과 은거(隱居)

■ 주제

- 자연에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
- 유교적인 깨달음의 실천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소망

■ 의의 : 퇴계 이황의 영남 학풍을 계승, 강호가도의 맥을 잇고 있고, 인간적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실감나게 제시됨

■ 출전 : <송암집>

▣ 이해와 감상

조선 선조 때 퇴계 이황의 제자 권호문(權好文)은 진사가 된 후에는 벼슬길을 단념하고 산림처사로 자처하는 심정을 19수로 된 연시조 <한거십팔곡>으로 나타냈다. 각 연은 독자적인 주제를 개별적으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의미상의 맥락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짜여 있어 시상과 주제의 전개 및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벼슬길과 은거생활의 갈등에서부터, 속세에 미련을 갖지 않고 강호의 풍류를 즐기며 살아가는 담담한 심회를 적어 내려간다. 이어서 현실세계의 티끌을 초월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 1수에 덧붙여 맺었다.

작품 전체가 현실세계로부터 일탈하여 강호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계기에 의하여 단계적,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제 1연에서는 작자의 마음이 현실세계에 이끌려(충효 관념으로 나타남.) 마음의 방향을 거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시 작자의 마음을 “평생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재황황(十載惶惶)하노라”라고 표현하였다. 제4, 5연을 전후하여 현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과 강호생활을 즐기자는 마음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제9~15연에 이르러서는 자연 속에서 안분자족(安分自足)하는 삶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확고히 한다. 그 후에, 마지막 제19연에서 “강간(江干)에 누어서 강수(江水)보는 뜨든 / 서자여사(逝者如斯)하니 백세(百歲)인들 먼근이로 / 십 년 전(十年前) 진세일념(塵世一念)이 어름 녹듯 한다.”라고 끝맺는다. 즉 첫 연에서의 현세에 대한 미련의 감정이 '얼음 녹듯' 해소되었음을 적고 있다.

작자는 이렇게 강호자연에 침잠하는 삶을 통해 현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해소한 듯이 선언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현실과의 끈끈한 맥에서 출발하여 현실과의 관련성에서 끝맺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은, 작자의 본심이 강호에 있음이

아니라 현세에 있음을 반증한다. 즉, 현실의 근심을 잊기 위하여 처사적(處士的) 삶을 선택하지만, 무위자연의 노장적(老莊的) 삶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념으로 허구화된 자연의 공간 속에서 현세의 불평과 시름을 치유하고자 할 뿐이다. 그것은 현실이 아무리 불만스러워도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사대부적인 은일 자세 때문이다. 제8연에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이라 노래한 것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이러한 현세 긍정의 끈끈한 맥은 다음과 같은 심적 갈등의 내면표출이라는 문학성을 낳는다. “강호에 놀자하니 성주(聖主)를 바리레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귀예라 / 호온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제4연). 실제로 작자는 현실에 대한 불평을 바탕으로 하여 노래를 지었음을 밝힌 바 있다.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 살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은둔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노래는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후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 작자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